

보도시점 2026. 7. 17.(금) **배포 시** 배포 2026. 7. 17.(금)

농식품부, 제헌절 연휴 집중호우 대비 상황 긴급 점검

- 농식품부 주재, 지방정부(9개 시·도)·산림청·농진청·농어촌공사·농협 등 대상으로 7.17~19일 제헌절 연휴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 개최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7월 17일(금) 오후 2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7.17~7.19일 제헌절 연휴 집중호우 대비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.

기상청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7월 17일(금)까지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*가 오고 7월 18일(토)에는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18일(토) 새벽부터 19일(일) 저녁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**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.

* 예상강수량(17일, mm): 전라권·경상권 30~80(전라해안 100↑)/충청권·경북권 20~60/제주도 5~30/경기남부 5안팎

** 예상강수량(18~19일, mm): 수도권·강원도 100~200(많은 곳 300↑), 충청권 80~150(많은 곳 250↑)/경상권 50~100(많은 곳 150↑)/전라권 30~80(많은 곳 100↑)

이번 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본부 소관부서 및 산림청, 농진청,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 등 재해 대응기관과 9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저수지 균열·누수 여부, 배수장 가동상태, 원예시설 방풍망·배수로 정비, 축산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, 산사태 낙석·붕괴 여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호우 대비사항을 긴급 점검하였다.

또한, 최근 많은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,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조하였다.

이와 함께, 농식품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, 농진청, 산림청, 농어촌공사,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.

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“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,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	책임자	과 장	최종순 (044-201-2871)
		담당자	사무관	안광현 (044-201-2782)

